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7714

龍 또 '승천'

▲FA컵 축구 결승 2차전 포항 스틸러스-전남 드래곤즈전에서 전남 송정현이 선취골을 넣은 뒤 골 세레머니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2007 축구 FA컵 결승 2차전 포항스틸러스와 경기에서 3-1로 승리한 전남 드래곤즈 선수들과 허정무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들이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정현 '캡틴 짱'…전남 사상 첫 2연패

스타는 없지만 조직력으로 무적 과시

■ 전남 드래곤즈 우승까지

전남에는 내세울 만한 스타가 없다는 점에서 2회 연속 우승은 더욱 값진 평가받고 있다.

1994년 12월 창단한 전남은 K-리그 정규리그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지만 FA컵과 같은 단기전에서는 유달리 강한 모습을 보여 왔다.

전남은 지금껏 정규리그 우승이 단 한 차례도 없다. 1997년 시즌 10승6무2패로 2위에 올랐던 게 그나마 내세울만한 성적표다. 2003년부터 2년 연속 4위를 차지한 이후 줄곧 중하위권을 맴돌았다.

올 시즌에도 7승9무10패로 반타작도 하지 못한 채 전체 14개 팀 가운데 10위에 머물러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실패했다.

그러나 FA컵에선 달랐다. 전남은 창단 3년 만인 1997년 제2회 FA컵에서 천안(현 성남)을 1-0으로 누르고 첫 우승을 차지했다. 김정혁 전남 코치가 당시 최우수 선수(MVP)로 뽑혔다.

이어 김효일(현 경남)이 MVP로 선정된 지난 해 제11회 대회 결승에서는 수원 삼성을 2-0으로 제압, 두 번째 정상에 오른 뒤 올해 감격적인 2연패를 달성했다.

전남의 FA컵 우승에는 단기전이면 더 강해지는 선수들의 의기투합이 단단히 한 몫 했다.

정규리그에선 그다지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지만 FA컵에선 강민수-이준기-곽태휘 스리백을 주축으로 한 짠물 수비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미드필더진의 탄탄한 조직력으로 승승장구했다.

지난 해 대회에선 승부차기를 제외하고 16강 이후부터 결승까지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며 우승했고, 올해도 전북 현대와 16강전을 시작으로 인천 유나이티드와 준결승까지 1실점도 하지 않는 막강한 수비진을 바탕으로 결승까지 진출했다.

또 결승 1, 2차전에선 연달아 세 골씩 뽑아내는 화끈한 공격력이 빛을 발했다.

1차전 곽태휘, 2차전 송정현 등 기대하지 않았던 골잡이가 등장한 것도 허정무 감독을 활짝 웃게 만들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FA컵 결승 2차전서 선제·결승골 맹활약

포항 3-1 제압…내년 亞챔피언스리그 출전

전남 드래곤즈가 '2007 마지막 결전'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꺾고 2회 연속 FA컵을 들어올리며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썼다.

'토종 명장' 허정무 감독이 이끈 전남은 2일 오후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2007 하나은행 FA컵 축구선수권대회' 결승 2차전에서 주장 송정현이 선제골과 결승골을 터트리고 산드로가 추가골을 넣어 K-리그 챔피언 포항 스틸러스를 3-1로 무너뜨렸다.

지난달 25일 광양에서 열린 결승 1차전에서 3-2로 역전승한 전남은 1, 2차전 합계 스코어 6-3(2연승)으로 작년에 이어 두 해 연속 우승하며 올해 12회째를 맞은 FA컵에서 사상 처음 2연패 위업을 이뤄냈다.

전남은 1997년, 2006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우승으로 전북(2000, 2003, 2005년)과 함께 최다 우승팀이 됐고, 허정무 감독은 전남을 맡아 개인 통산 세 번이나 FA컵을 차지했다.

전남은 우승상금 2억원과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냈다.

이날 결승 무대의 스타는 전남의 캡틴 송정현 이었다. 공격형 미드필더 송정현은 전반 35분 이상일이 대각선으로 찔러준 로빙 스루패스를 가슴으로 받아 포항의 마지막 수비수 이창원을 왼발로 젖혀낸 뒤 오른발 캐넌슈팅을 꽂았다.

쭉 뻗은 슈팅은 골키퍼 정성룡 옆을 뚫고 지나가 크로스바 밑둥을 때린 뒤 세차게 그물을 출렁이며 첫 골을 기록했다.

이에 파리아스 감독은 후반 슈벵크 대신 황진성을 투입하는 용병술로 승부수를 띄웠다. 3분 만에 파리아스 매직이 다시 힘을 얻는 듯 했다.

박원재의 슈팅을 전남 수문장 염동균이 힘겹게 쳐내고 고기구가 혼전 중 흘려버린 볼을 황진성이 문전 쇄도하며 차넣어 1-1을 만들었다.

포항이 한 골을 더 넣으면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가는 상황.

그러나 전남은 '잠그기'보다 적극적인 공격으로 국면을 전환했다. 후반 35분 송정현이 또 해결사 역할을 해냈다.

김치우가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자 골문 앞에서 슬라이딩 터치슛으로 네트를 갈랐다.

전남은 이어 후반 38분 일본계 브라질 용병 산드로 히로시가 강력한 왼발 터닝슛으로 세 번째 골을 뽑아 포항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한편 측면 공격으로 활로를 뚫고 전담 키커 역할도 해낸 전남 김치우가 올해 FA컵 최우수선수(MVP)로 뽑혔고, 득점상은 2골 공동 득점자가 많아 시상하지 않았다.

지도자상은 전남 허정무 감독과 김봉길 코치가 받았고, 페어플레이상은 제주 유나이티드에 돌아갔다. 이날 경기로 그라운드를 떠난 권종철 심판이 심판상을 수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FIFA 올해의 선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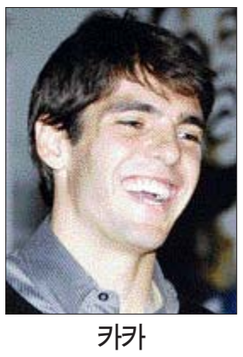
최종 후보 3명으로 압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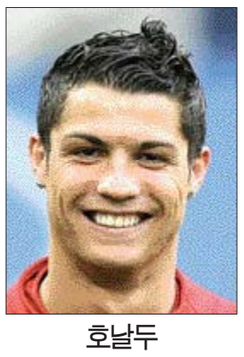
국제축구연맹(FIFA)이 카카(AC밀란)와 크리스티나우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를 '2007 올해의 선수' 최종 후보로 압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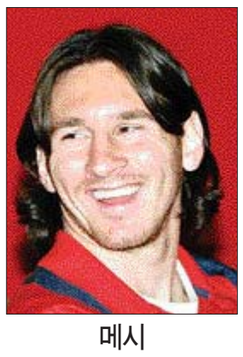
FIFA는 지난 1일 인터넷 홈페이지(www.fifa.com)에서 "전 세계 대표팀 감독과 주장들의 투표를 통해 30명의 후보 명단에서 호날두와 카카, 메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며 "여자 최종후보는 마르타, 크리스티안(이상 브라질), 비르기트 프란츠(독일)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2006~2007 시즌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10골을 터트려 대회 득점왕에 오르며 AC밀란에 우승컵을 안겼던 카카는 이미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 선정 '2006~2007 시즌 올해의 선수'와 'UEFA 올해의 프로축구 선수'까지 차지하면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메시는 이번 시즌 뛰어난 득점력을 앞세워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묘기를 부렸고, 호날두는 지난 시즌 17골을 터트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힘을 보탰다.


카카


호날두


메시

이동국 62일만에 선발 출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62일만에 귀중한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지만 끝내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태극전사 프리미어리거 4호 이동국은 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레딩 마데스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7~2008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레딩FC와 원정 경기에 제레미 알리아디에르와 함께 선발 투톱 공격수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시즌 두 번째 선발 출전으로 지난 10월1일 에버턴전 이후 두 달만에 스타팅으로 나왔다.

팀 내 주전 경쟁에서 밀려 방출 위기를 맞고 있는 이동국은 출전 자체도 지난달 4일 토트넘전 이후 거의 한 달만이었다.

강등권까지 처진 미들즈브러는 레딩과 1-1로 비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골프·콘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골프장	시세(만원)	골프장	시세(만원)
광주	3,500	클럽900	6,200
남광주	4,300	파인힐스	12,200
승주	8,200	함평	7,400

상담문의 (062)351-0095